

20세기의 상징 쓰레기

-편 집 실-

‘길잃은 쓰레기... 방황하며 갈 곳 없는, 대서양의 새로운 해적선... 작렬하는 태양아래 잘 익어가는 쓰레기... 흑과리로 덮힌 무서운 배... 악취... 20세기의 상징물.’

미국 뉴욕근처에 있는 아이스립이란 마을에서 일어난 쓰레기사건으로 각 언론들이 화려하게 지면을 장식하면서 쓴 문구들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아이스립에서 3천 1백36톤의 쓰레기를 화물선에 실어 타지방으로 보내려다가 언론에 탄로가 나서 이 선적선은 미국 6개주에서 상륙불허를 당하고, 남미 3개국으로 부터는 공군까지 동원되어 거부당해 결국 6개월동안 6천마일을 방황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소각된 것이다.

신문지, 플라스틱 음료수병, 1회용 기저귀 등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된 요즘. 동서진영의 원폭전쟁 가능성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쓰레기가 인류복지를 더욱 위협하는 웃지못할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20주년을 기념 지금 세계는 시급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 오존층파괴, 대기온도 급상승, 산성비, 열대산림지파괴, 공기오염, 수질오염, 화학산업폐기물, 농약중독.....

그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쓰레기의 양산과 매립지고 갈로서 이는 당장 우리의 생활습관과 경제력에 직결된 시급한 것이



다.

요즘 미국에선 ‘넘비(NIMBY) 신드롬’이란 신조어가 생겼다한다. ‘Not In My Back Yard’의 약어로 먼곳의 쓰레기처리장은 좋지만 우리 뒷마당은 안된다는 것이다.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반대는 온 세계가 마찬가지여서 각 도시나 정부, 주, 주민들 사이에 법정투쟁이 끊일 날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쓰레기가 8만7천톤으로 1인당 2.1Kg꼴. 매일 8톤트럭 1만대 이상이 동원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8.4%씩 늘어갔고 최고 9.8%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쓰레기배출량도 독일 0.7Kg, 일본 0.8Kg, 미국 1Kg과 비교하면 2~3배가량 많다. 청소인력으로 보면 1인이 하루에 무려 2.8톤을

치워야하며 장비도 리어카식 손수레가 대부분이다.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도 막대해서 지난 86년 자료로 볼 때 쓰레기 1t 처리에 한국이 5,900원, 일본이 12만원, 미국이 10만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지나 소각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매립에 의한 쓰레기처리가 전체 쓰레기양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비해 스위스는 15%에 지나지않는다. 천혜의 어패류와 조류서식지였던 난지도(蘭芝島)가 이름이 무색해질만큼 공기조절이나 습도공급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하루에도 수천대분의 폐기물이 쌓이고 재빨리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악취와 부식, 병원균 침입, 재산가치와 환경의 심미적 가치를 하락시킨다.

소각되거나 재이용 및 자원화될 수 있는 쓰레기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매립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가 더욱 어렵다.

유독성폐기물을 단순히 매립해 수천세대의 이주와 기형아를 만들어 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폭포로부터 동쪽으로 1백야드정도 떨어진 폴즈사에서 일어난 ‘러브키넬사건’이다.

제2차오염사건으로 충격을 던진 이 사건은 1892년 윌리엄 러브(William Love)가 나이아가라폭포 자연경관을 이용해 관광업을 시작하고자 한창 운하를 파던 중 자연 생태학자들의 거친 반발로 길이 1마일가량의 웅덩이(운하)만을 남긴 채 공사를 중단한 데서 시작된다. 1940년대초 이 웅덩이에다 인근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약2만2천톤을 매립해 택지를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들어섰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비가 오면 폐기물이 매립된 장소에서 유독성 가스가 올라와 73~78년간 출생한 16명의 어린이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간질병세 등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1978년에 카터 당시 미국대통령은 이 지역을 국가적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집단이주시켰으며 출입을 폐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유독

성 가스가 계속 흘러나와 실험용 흰쥐를 이용한 결과 타지역 거주취보다 절반이상 수명이 짧다고 한다.

쓰레기처리가 심각해지자 재생가능한 쓰레기나 쓰레기성분에 따른 분류수거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또는 정부가 나서서 방법을 강구해 가고 있다.

일본 동경의 경우 불에 타는 것은 누런 봉투에, 안타는 것은 하늘색 비닐주머니에 담아 지정된 하치장에 내놓으면 지정된 날짜, 시간에 압축쓰레기청소차가 치워간다. 1일 1만5천여톤 쓰레기중 5.07%는 쓰레기처리공장에서 태우고 48.6%는 매립을, 0.7% 등은 자원으로 회수한다. 매립되는 것도 분쇄기를 거쳐 1/3정도로 부피를 줄인다.

프랑스의 경우 쓰레기수거운반이 기계화되어 지정장소에 쓰레기주머니를 내놓으면 기계식 청소차가 자동으로 끌어올려 압축시킨다. 가로청소는 차도변 빗물받이쪽에 쓰레기를 붙여놓고 수도전을 틀어 하수도로 내려보내면 센장으로 흘러들기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되어있다. 개똥도 오토바이가 무전으로 지령받아 순찰하면서 발견하면 오토바이를 기울여 흡인장치가 빨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쓰레기처리로 지구가 골머리를 앓자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쓰레기의 양과 질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른바 ‘가볼로지스트(Garbologist)’로, 이들에 의하면 바나나껍질은 2~5주만에 부식되지만 겨울양말은 1년, 플라스틱은 1백30년, 신문지 1년, 기저귀 4백년, 나무의자 20년, 유리병은 1백년이 지나야 자연부식된다. 따라서 빨리 썩는 포장지연구가 인기있는 학문분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쓰레기매립 시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 성공한 경우가 많다. 후쿠오카시 매립지는 야구장과 농지로 변했고 미국 버지니아주 관광지인 버지니아 비치시에는 쓰레기로 거대한 산언덕이 만들어져 운동장과 공원이 들어섰다.

곧 쓰레기문제는 인간의 생활습성과 예산, 의지력의 문제이지 기술 부족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봉산에서 행락객들이 먹어치우고 난 쓰레기가 무려 하루 30톤이나 되며 매년 1백40만평 정도의 국토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구는 늘어가는데 사람살 땅은 점점 줄어든다. 더이상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